

ISSN 2093-3118

IIT

INSTITUTE FOR
INTERNATIONAL
TRADE

Trade Focus

Vol.11 No.8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과 유망 진출분야

2012년 1월

문병기 연구원

장민주 연구조원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목차

[요 약]

I. 멕시코 시장의 부상	1
II. 한-멕시코 무역현황	3
III. 한-멕시코 투자현황	7
IV. 미주대륙 진출 거점, 멕시코	9
V. 유망 진출분야	13

☐ 보고서 내용 문의처

문병기 연구원 (☎ 02-6000-5103, bkmun@kita.net)

장민주 연구조원

* 『Trade Focus』는 국제무역연구원에서 매주 월요일 이메일로 발송하는 KITA CEO Report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http://iit.kita.net>)를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멕시코는 인구 1억2천만명,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 내수시장이다. 중남미 전체 GDP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중남미 7개국(LAC-7) 중에서도 멕시코는 연간 수입액이 3,523억 달러로 무역규모가 가장 크다.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1967년 5만5천 달러에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91억 달러로 16만배 이상, 수입은 78만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2,800배 증가하여 멕시코는 우리나라 10위 무역 대상국이 되었다. 또한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에 힘입어 2011년 11월 기준 무역흑자는 69억 달러로 전체흑자의 24%를 차지하며 1988년에 무역적자 대상국에서 우리의 7위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돌아섰다.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 금액은 1980년 10만달러에서 2010년 6천4백만 달러로 640배 증가하였다. 2008년에 3.7억 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컸으며, 1980년부터 2011년까지 멕시코에 대한 총 투자액은 11.4억 달러에 달한다. 투자업종에서는 1980년 도소매업이 96%였으나 2010년에는 제조업이 90%에 육박한다. 삼성, LG, 포스코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 선점 및 북미 수출을 위해 생산공장을 가동 중이다.

우리기업의 멕시코 건설·플랜트 시장 진출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1965년부터 2010년까지 멕시코에서 건설·플랜트 관련 수주 금액은 38.6억 달러로 이는 동 기간 중남미에서 수주한 금액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도 멕시코에 대한 수주 금액은 4억 달러로 멕시코 석유화학 플랜트 및 인프라 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또한 멕시코의 주요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은 2010년 기준 GDP의 3%, 제조생산의 14%,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 수출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자동차 부품 수출의 기회이다.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관의 對멕시코 수출액이 對멕시코 연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2%에서 2011년 2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멕시코는 우리의 주요 소비시장인 미주대륙 및 유럽과의 지리적 근접성이 뛰어나고 인건비 및 물류비용이 저렴하여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다. 건설·플랜트 및 자동차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미주대륙 진출거점으로 삼기 위해서는 현지업체 및 외국업체와의 공동 진출이 효과적일 수 있고 한-멕시코 FTA 체결 및 긴밀한 경제협력이 요구된다.

본문

I. 멕시코 시장의 부상

□ 세계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신성장국가로서 부상

- 멕시코는 인구 1억2천만명,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 내수시장이자, 연간 수입액 3,523억 달러의 중남미 최대 교역시장임
 - 2011년 중남미 전체 GDP(5.8조 달러)의 90%를 중남미 7개국(LAC-7)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멕시코가 중남미 GDP의 20%를 차지함
- 또한 멕시코는 MIKT(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중 한 국가로 국민소득이 한국과 비슷하며 성장잠재력이 매우 큼
 - 넓은 국토면적(196만 km²)과 1억명이 넘는 인구수, 성장에 필요한 자본력의 증가,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등의 원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임

<LAC-7과 MIKT 주요 경제지표>

국가명		GDP (억달러)	인구 (백만명)	1인당 GDP (달러)	경제 성장률(%)	수출 (억달러)	수입 (억달러)
L A C - 7	브라질	24,801	197	12,611	2.9	2,572	2,271
	아르헨티나	4,310	41	10,573	7.8	825	719
	베네수엘라	3,354	29	11,373	3.4	904	446
	콜롬비아	3,321	47	7,076	5.2	538	507
	칠레	2,346	17	13,598	6.3	825	697
	페루	1,748	30	5,860	6.8	453	373
	*멕시코(M)	11,415	115	9,944	3.9	3,492	3,523
인도네시아(I)		8,424	242	3,476	6.4	2,004	1,709
한국(K)		11,169	48	23,081	3.6	5,487	5,224
터키(T)		7,690	74	10,443	8.2	1,436	2,311

주 : 2011년 기준

자료 : Global Insight

□ 본 보고서에서는 한-멕시코 수교 50주년을 맞아 양국의 무역 및 투자 현황을 살펴보고, 미주대륙 진출거점으로서 멕시코의 강점과 유망 진출분야를 살펴보고자 함

【참고 : MIKT의 성장잠재력】

□ 미트(MIKT)는 멕시코 · 인도네시아 · 한국 · 터키의 영문 첫글자를 따서 만든 신조어로 2010년 골드만삭스에서 미트(MIKT)를 브릭스(BRICs)와 함께 경제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로 지목하면서 새롭게 주목받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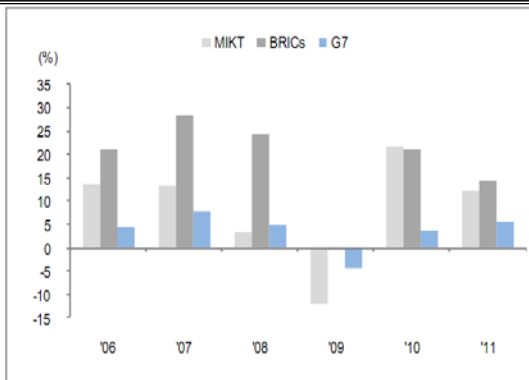
- IMF의 2011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MIKT의 2000년~2010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8%로 향후 5년간 동일 수준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어 성장률이 현재의 18%대에서 11%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이는 BRICs에 비해 안정된 성장이 예상됨

□ MIKT의 성장잠재력에 대한 근거

- 인플레이션이 장기적으로 하락하여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며, 정부부채가 낮고, 외환보유고가 증가하여 재정안정성이 우수함
- 총자본형성률이 높고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하고 교육수준이 향상되어 고령화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BRICs에 비해 내수시장 확대와 생산성 향상에 의한 장기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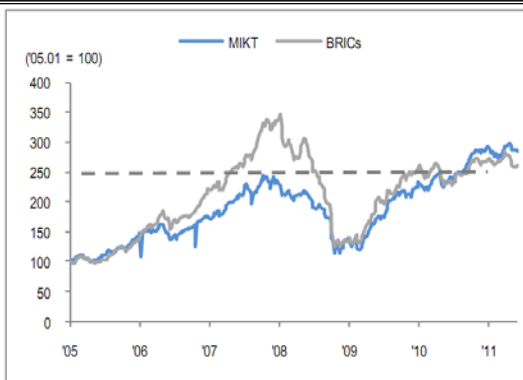
<MIKT의 경제성장 현황>

<MIKT와 G7, BRICs의 경제성장을 추이>



자료 : IMF, 우리투자증권

<MIKT와 BRICs의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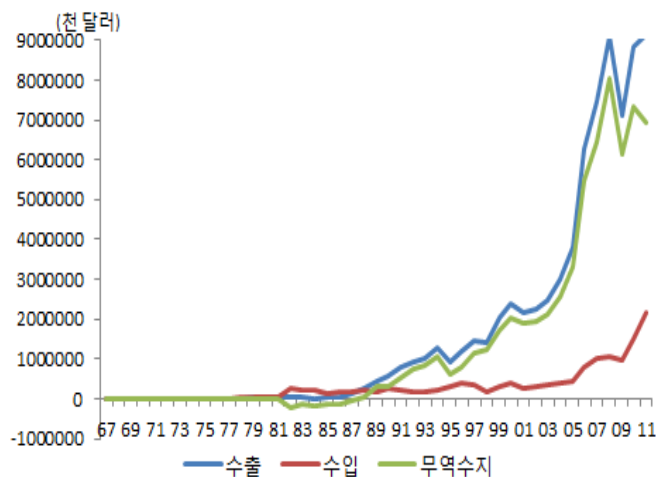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우리투자증권

Ⅱ. 한-멕시코 무역현황

- 우리나라의 對멕시코 수출액은 1967년 5만5천 달러에서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91억 달러로 16만배 이상, 수입은 78만 달러에서 22억 달러로 2,800배 증가하였음
- 수출의 가파른 증가세에 힘입어 1988년에 무역적자국에서 우리의 중요한 무역 흑자 대상국으로 돌아섰음

<對멕시코 무역현황>

무역추이



1981~1990 무역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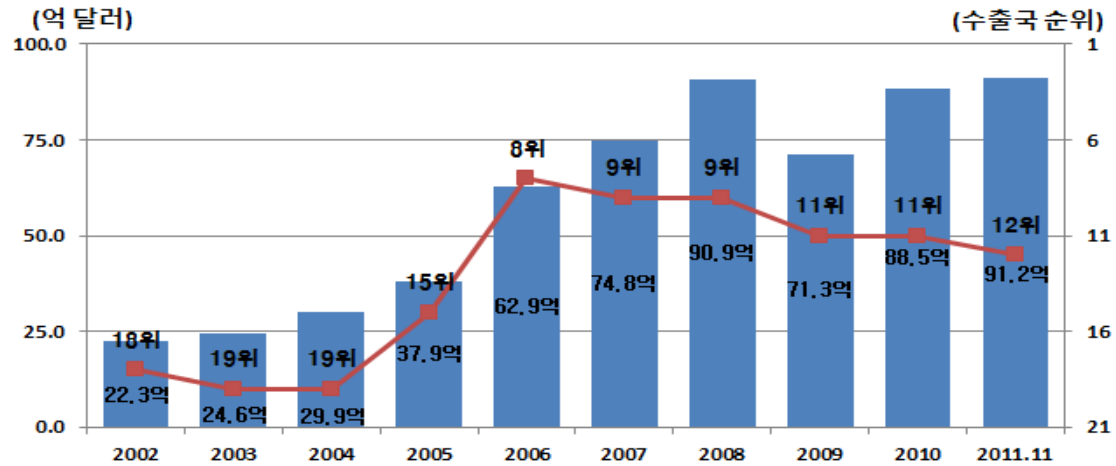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달러)

연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81	50	56	-6
82	43	261	-218
83	51	201	-150
84	20	212	-193
85	26	139	-113
86	51	175	-124
87	133	181	-48
88	280	220	60
89	462	163	298
90	560	264	295

자료 : kita.net

- 멕시코는 2011년 11월 기준 우리나라 12위 수출 대상국으로 무역수지의 23.7%를 차지하여 우리의 7위 무역흑자 대상국임
- 2011년 1월부터 11월까지 對멕시코 수출은 91억 달러, 무역액은 113억 달러를 기록하여 무역규모 10위로 브라질과 함께 중남미 최대 무역 대상국임
- 對멕시코 수출 금액은 2002년 22.3억 달러에서 2010년 89.5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 무역규모는 4.5배 증가하면서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으로 자리를 굳힘

<對멕시코 수출 동향 및 순위 변화>



자료 : kita.net

<주요 무역흑자 대상국 비교>

(단위 : 억 달러, %)

순위	대상국가명	수출	수입	무역수지	흑자비중
1	중국	1,225	796	430	146.6%
2	홍콩	285	22	264	89.9%
3	싱가포르	190	82	108	36.9%
4	미국	516	409	107	36.5%
5	베트남	122	47	75	25.7%
6	라이베리아	70	0	70	23.9%
7	멕시코	91	22	69	23.7%
8	마셜군도	68	0	68	23.0%
9	브라질	111	58	53	18.2%
10	그리스	13	1	12	4.0%
전체		5,081	4,788	293	100.0%

주 : 2011.1~11월 기준, 무역적자 대상국에 대한 흑자비중은 음수
자료 : kita.net

- 최근 10년간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을 제외하고 멕시코에 대한 수출과 수입, 무역수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음
- － 對멕시코 수출입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 1~2.5%, 수입 0.18~0.45%로 낮으나 무역수지는 전체 무역흑자에서 8~45%로 큰 비중을 차지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 부문의 부품 수요 증가로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자동차부품, 전자관, 반도체의 수출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유리제품과 가정용 회전기기, 인조장섬유직물 수출은 감소하였음

- 자동차부품, 반도체,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석유제품의 수출액이 2002년 대비 2010년 수출액 증가율(4배)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10대 주력 수출품목으로 부상함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품목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배)

2002년 순위	품 목	2002년 수출액	→ 증감	2010년 수출액	2010년 순위
1	컴퓨터	296	0.7	214	8
2	전자관	253	18	14	42
3	무선통신기기	249	1	333	6
4	영상기기	159	6	961	2
5	합성수지	114	2	257	7
6	자동차	102	5	478	5
7	가정용회전기기	90	0.7	59	20
8	철강관	75	11	795	3
9	인조장섬유직물	64	0.4	24	32
10	유리제품	61	0.02	1	98
17	자동차부품	26	20	514	4
39	반도체	6	26	155	10
74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	3,155	3,155	1
123	석유제품	0.1	1,570	157	9
전 품목		2,231	4	8,846	

주 : MTI 3단위 기준,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 2002년 기점
자료 : kita.net

- 수입 품목은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과 아연광, 무선통신기기, 기타금속광물, 계측제어분석기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고 인조섬유장섬유사, 수산가공품, 사진 영화용재료의 수입은 감소함
- 컴퓨터, 자동차부품을 제외한 2002년 10대 수입품목들의 증가율은 전 품목 증가율(5배)보다 낮아 모두 10대 수입품목에서 제외되었고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아연광 등이 10대 수입품목에 오름

<한국의 對멕시코 수입품목 변화>

(단위 : 백만 달러, 배)

2002년 순위	품 목	2002년 수입액	→ 증감	2010년 수입액	2010년 순위
1	유선통신기기	38	1.2	46	11
2	반도체	31	1.3	41	13
3	소금	20	2.2	43	12
4	컴퓨터	19	3.2	61	7
5	수산물가공품	17	0.1	2	51
6	자동차부품	14	3.4	49	10
7	인조섬유장섬유사	14	0.0	1	73
8	석유화학합성원료	11	-	-	-
9	농약및의약품	10	1.5	15	25
10	사진영화용재료	9	0	0.1	114
116	아연광	2	86.3	180	1
619	강반제품 및 기타철강제품	0.03	5100.6	163	2
812	무선통신기기	4	26.4	108	3
119	기타금속광물	4	20.4	87	4
21	계측제어분석기	4	13	52	9
-	연제품	-	-	77	5
-	합금철선철 및 고철	-	-	64	6
-	동광	-	-	57	8
전 품목		295	5.1	1,521	

주 : MTI 3단위 기준, 한-멕시코 투자보장협정이 발효된 2002년 기점
자료 : kita.net

- 수출 상위 10대품목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 67%에서 2010년 79%로 증가한 반면 수입 상위 10대 품목의 비중은 62%에서 59%로 감소하였음

Ⅲ. 한-멕시코 투자현황

-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 금액은 1980년 10만 달러에서 2010년 6천4백만 달러로 640배 증가하였음
- 멕시코에 대한 외국인 직접투자는 2010년 기준 187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FDI 유입액의 12%를 차지하고 있음
 - LAC-7 국가로의 자본유입 증가로 중남미가 세계 FDI 중 13%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브라질, 멕시코, 칠레가 중남미 전체 FDI 유입액의 50% 이상 차지하고 있음
-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직접투자는 2008년에 3.7억 달러로 아시아 국가 중 가장 컸으며, 1980년부터 2011년까지 멕시코에 대한 총 투자액은 11.4억 달러에 달함
 - 멕시코 직접투자 주요국들은 미국, 스페인, 네덜란드, 캐나다 등으로 미국이 4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일본, 한국, 싱가포르와 같은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각 0.4~1.4%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중남미 주요국의 FDI 유입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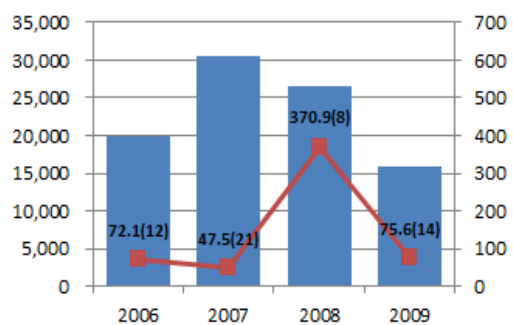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

구분	2008	2009	2010
브라질	451(12)	259(18)	484(30)
멕시코	263(22)	153(11)	187(12)
칠레	152(13)	129(9)	151(9)
중남미(A)	2,067	1,410	1,592
세계(B)	17,441	11,850	12,437
중남미 비중(A/B)	11.9%	11.9%	12.8%

주 : ()는 중남미 전체 FDI 중 각 국가의 비중
자료 : UNCTAD

<對멕시코 한국의 FDI 현황>

(단위:백만달러) ■ 세계→멕시코 ■ 한국→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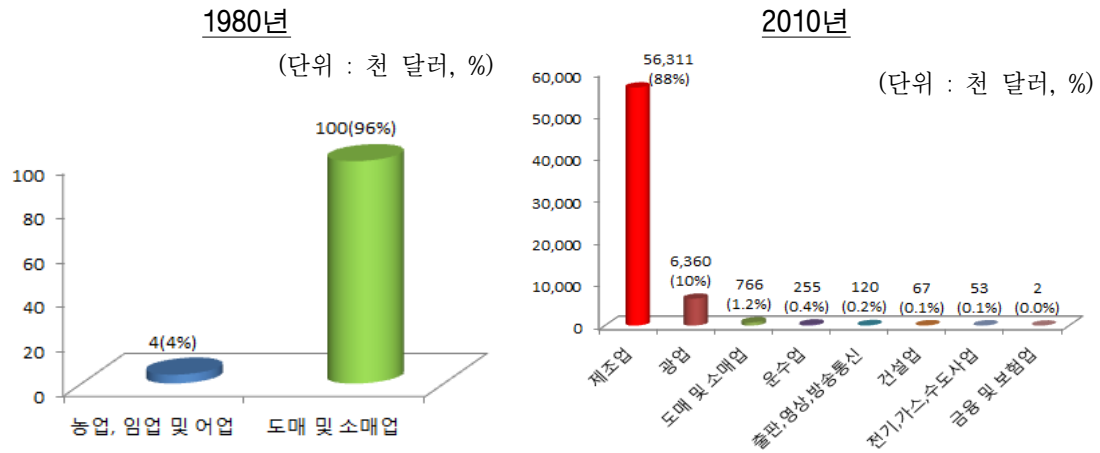


주 : ()는 금액 기준 한국의 멕시코 투자순위
자료 : 멕시코 경제부(SE)

- 멕시코에 대한 한국의 투자업종에서는 1980년 도소매업이 96%였으나 2010년에는 제조업이 90%에 육박함

- 2010년 투자금액의 88%(5천6백만 달러)가 제조업이 집중되어 있으며, 그 다음으로 광업이 10%(6백만 달러)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의 對멕시코 업종별 투자 변화>



자료 : 수출입은행

- 삼성전자, 삼성물산, LG전자, 포스코 등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멕시코 시장 선점 및 북미 수출을 위해 생산공장을 가동 중임
- 포스코는 2.5억 달러를 투자하여 멕시코 동부 알타미라시에 CGL(용융아연도금강판)공장을 설립하였음

<한국 기업의 멕시코 진출 현황>



자료 : ProMéxico, 2nd Latin American Forum KCLAC(2010. 3. 31.)

Ⅳ. 미주대륙 진출 거점, 멕시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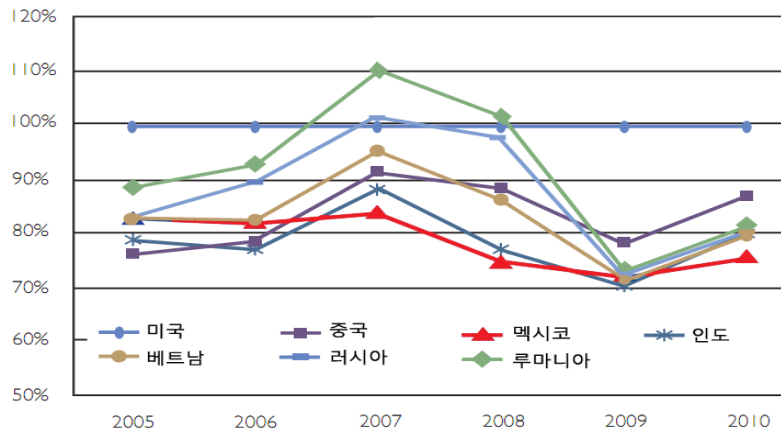
- 멕시코는 지리적 근접성이 뛰어나고 수출입절차가 간편하며 운영 및 물류비용이 저렴하여 미국 및 인접 미주 시장의 진출기지로써 각광받고 있음
 - 대부분의 외국인투자 기업들은 멕시코에서 제품을 조립, 가공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북미 및 중남미 수출기지형 사업구조를 구축함
 - 멕시코는 1965년부터 미국-멕시코 국경지역에 투자하는 내·외국 기업에 재수출 조건으로 도입되는 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 및 각종 규제를 없앤 ‘마길라도라’라는 제도를 시행해 옴

【참고 : 마길라도라 산업】

- 마길라도라(maquiladora) 산업은 멕시코에서 외자유치 및 수출 장려를 위해 시행된 보세가공 수출산업을 일컫음
 - 멕시코의 값싼 노동력 및 지리적 이점을 이용하여 미국과 접경한 북부지역에서 외국산 원부자재, 기계장비 등을 무관세로 수입하여 조립가공한 후 재수출하는 노동집약적 산업 형태임
 - 제조, 보세임가공, 수출서비스산업 진흥프로그램(IMMEX)을 통하여 수출용 상품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기계, 장비, 부품, 소재 등을 임시 수입할 수 있음

- 특히 제조업 경쟁력이 뛰어나 특히 미국 시장에 진출한 기업의 생산기지로써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음
 - 국제 컨설팅업체인 Alix Partner사는 미국 시장 진출 시의 양륙포함가격을 비교했을 때 인도, 베트남, 러시아, 중국과 같은 주요 저비용 제조업생산국가 중 멕시코의 생산 비용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
 - 최대 제조국가인 중국이 위안화 절상과 임금의 상승, 지리적 제한에 따른 운송비 부담을 지고 있는 데 반해 멕시코는 폐소화의 약세와 인건비 상승억제로 북미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을 확보함

<제조업 생산비용지수>



주 : 미국에서의 제조비용(100%)에 대비한 비용지수
 자료 : Alix partners analysis, <2011 US Manufacturing-outsourcing cost index>

- 주요 소비시장인 미주대륙 및 유럽으로 수출하는데 있어 한국에서 운송하는 것에 비해 13~17일을 단축시킬 수 있음
- 브라질에서 미국이나 일본으로 해상 운송하는 것에 비해서도 약 10~19일을 단축할 수 있어 미주대륙 및 동아시아 국가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재고비용을 줄일 수 있음

<주요소비시장까지의 해상운송 소요일>

(단위 : 일)

목적지	출발지				
	브라질	중국	한국	미국	멕시코
뉴욕	15	32	21	-	5
LA	23	18	17	-	4
로테르담	17	32	33	11	16
요코하마	35	4	3	15	19

자료 : Boston Consulting Group, ProMéxic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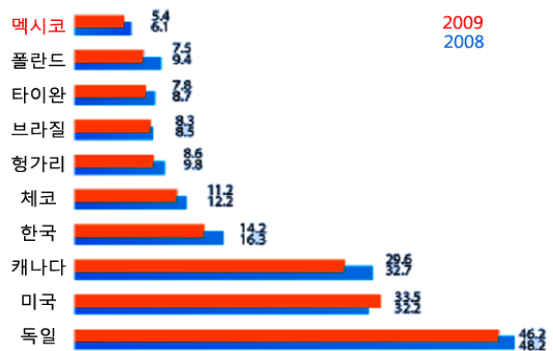
- 북으로는 미국, 남으로는 과테말라로 연결된 2만 7천 킬로미터의 철도를 비롯하여 63개의 국제공항, 114개의 항구 등 교통·물류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 멕시코 정부는 2010년 인프라에 8백억 페소를 투자하는 등 물류 플랫폼 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고 기업 경영환경이 우수함

- 2009년 제조업노동자의 시간당 보수는 5.6달러로 대만(7.8달러), 브라질(8.3달러) 등 경쟁국가 보다 낮고, 미국(33.5달러)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함
- 2011년 세계은행 비즈니스환경 평가에 따르면 건설허가 및 법인 설립 등의 행정절차가 간단하여 시간 및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음
-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절차와 평균 소요일수가 각각 6개와 9일로 중남미 평균(19.3개, 56.7일) 및 OECD 평균(5.6개, 13.8일)에 비해 절차가 간단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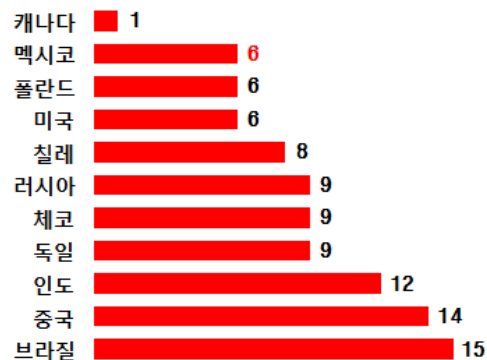
<제조업 노동비 비교>

(단위 : 시간당 달러)



<현지법인 설립까지의 절차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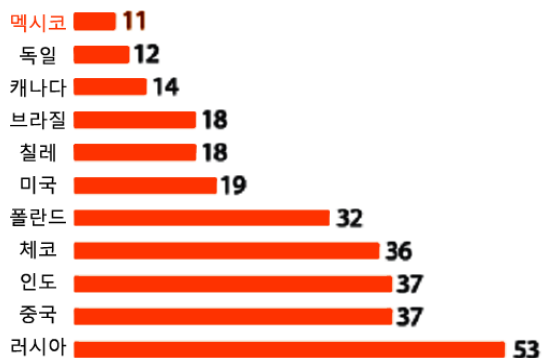
(단위 : 개수)



자료 : 미 노동통계청, ProMéxico

<건설허가 승인까지의 절차 수>

(단위 : 개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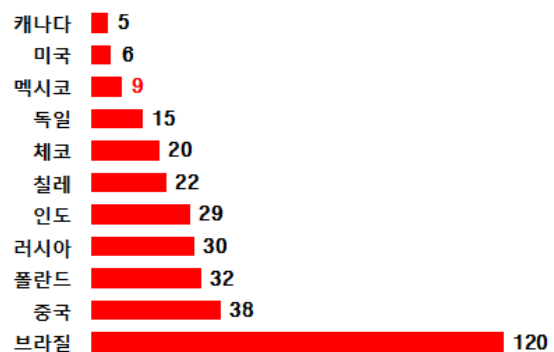


자료 : Doing Business, Worldbank2011

자료 : Doing Business, Worldbank2011

<현지법인 설립 소요일>

(단위 : 일)



자료 : Doing Business, Worldbank2011

□ 또한 미국, EU, 캐나다, 이스라엘, 일본, 콜롬비아 등 44개국과 12개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한국, 독일, 스페인, 아르헨티나 등 2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여 개방적인 경제구조임

- 일본이 2005년 FTA를 먼저 발효한 이후, 우리도 2007년부터 2차례 멕시코와 FTA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멕시코 자동차 업계를 비롯한 일부 산업계의 반대 등으로 협상이 중단된 상황임

<멕시코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현황>

구분	협정명(체결국, 발효년도)
FTA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체결 : NAFTA(미국, 캐나다, '94), 코스타리카('95), 볼리비아('95), G3(콜롬비아, '95), 칠레('99), 니카라과('98), 이스라엘('00), EU('00), Northern Triangle(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01),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01), 우루과이('04) -서명 : 페루 -협상 : 파나마, FTAA(미주34개국), 싱가포르, MERCOSUR(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한국, 중미(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브라질 -검토 : 에콰도르, 뉴질랜드
EPA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경제동반자협정)	-체결 : 일본('05)
ECA (Economic Complementatio n Agreement, 경제보완협정)	-체결 : 칠레('92), 페루('95), 우루과이('01), 아르헨티나('01), MERCOSUR 자동차('03), 브라질('03), MERCOSUR('06)

자료 : 명진호, “2011년, 주요국 FTA 추진 동향과 시사점”, 국제무역연구원, 2011. 9.

<멕시코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발효년도	체결국	발효년도	체결국
1996	스위질랜드	2004	체코
1998	아르헨티나	2006	파나마, 아이슬란드
1999	네덜란드	2007	호주, 트리니다드 토바고
2000	프랑스, 영국, 포르투갈, 덴마크, 핀란드	2008	스페인, 인도
2001	독일, 오스트리아, 스웨덴	2009	슬로바키아, 중국, 벨라루스
2002	한국, 이탈리아, 우루과이, 쿠바	2011	싱가포르
2003	벨기에		

자료 : 멕시코 경제부(SE)

V. 유망 진출분야

1. 건설·플랜트

- 석유, 천연가스, 광물자원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로 자원개발 및 발전 플랜트 건설 등의 수요가 많으며, 경제발전의 기초인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사업에 대규모 투자를 계획중임
- 멕시코는 세계 7위의 석유생산국인 동시에 은, 형석, 구리, 아연, 카드뮴, 흑연 등 광물자원과 천연가스의 주요 생산국이기도 함

<멕시코의 천연자원 연간 생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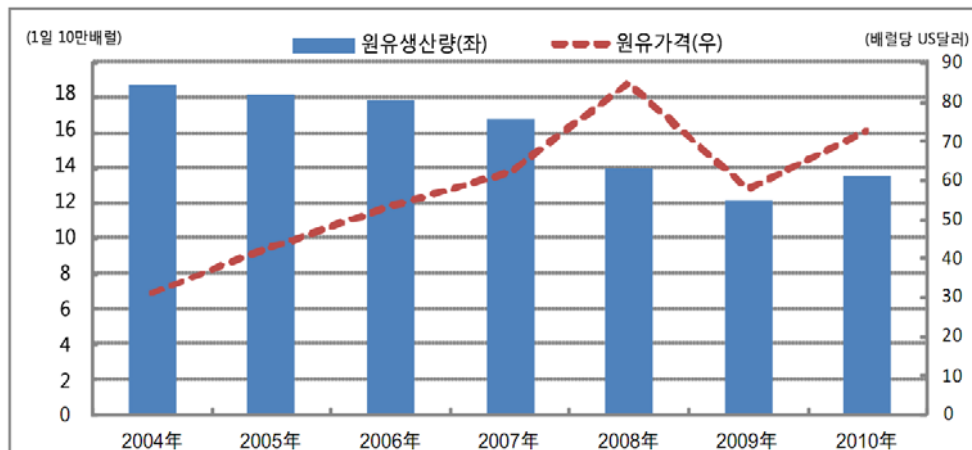
자원	생산량	세계 순위
석유	2.983 million bbl/day	7
천연가스	59.07 billion cu m	15
금	39,660,882,800 peso	18
은	36,466,112,600 peso	1
동	25,937,033,900 peso	13
철	7,087,859,800 peso	14
납	5,233,067,600 peso	6
아연	15,571,106,100 peso	8
석탄	5,650,597,800 peso	-
카드뮴	71,583,000 peso	7
망간	730,535,700 peso	9

주 : 2010년 기준

자료 : US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CIA, The Mexican Geological Survey

- 석유산업의 경우 국가독점 방침에서 심해유전 개발관련 운영권이 제한적으로 민간에 부여됨으로써 향후 민간투자 확대가 기대됨
- 2011년 3월, 멕시코 국립석유회사 Pemex가 석유산업이 국유화 된 1938년 이래 최초로 석유, 가스 개발 프로젝트 공개입찰에 외국기업 참가가 가능토록 함
- 국제유가의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재정능력 강화로 석유화학 플랜트 및 인프라 시설의 투자가 확대될 전망임에 따라 우리 기업들의 멕시코 건설·플랜트시장 수주활동도 활발해질 것임

<멕시코 원유 생산량 및 가격 변화>



자료 : PEMEX

- 1965~2010년 중남미에 대한 건설 누적 수주실적은 멕시코가 38.6억 달러로 중남미 전체 수주액의 4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중남미 지역의 건설 수주는 전년대비 221% 증가한 66억불을 기록하면서 해외 건설 전체 수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2.9%(21억 달러)에서 2011년 11.3%로 3배 이상 증가함

<중남미 해외건설 수주실적 현황>

(단위 : 억 달러, %)

지역	2009	2010	2011
중동	357(72.6)	473(65.9)	295(49.9)
아시아	109(22.2)	181(25.3)	194(32.9)
중남미	7(1.5)	21(2.9)	66(11.3)
북미	1(0.2)	13(1.9)	10(1.6)
아프리카	12(2.5)	24(3.4)	22(3.7)
유럽	5(1.0)	4(0.6)	4(0.6)
전체	491(100)	716(100)	591(100)

주 : ()는 각 지역별 비중
자료 : 해외건설협회

<對멕시코 건설 수주실적>

(단위 : 억 달러, %)

순위	국가	수주액	비중
1	멕시코	38.6	42
2	칠레	24.4	26
3	에콰도르	7.4	8
4	페루	5.7	6
5	엘살바도르	4.9	5
6	트리니다드	4.0	4
7	브라질	3.5	4
8	바하마	2.5	3
9	기타	2.0	2
전체		93	100

주 : 1965~2010년 누계
자료 : 해외건설협회

- 2011년 멕시코에 대한 수주 금액은 포스코-멕시코 제2연속 아연도금라인(2.1억 달러), 인터젠 산 루이스 데파즈 발전 프로젝트(1.5억 달러) 등 총 3건의 공사를 발주하여 4억 달러에 달함

<2011년 멕시코 건설 수주실적>

(단위 : 천 달러)

업체	공사명	발주처	금액
경동세라텍 (하청)	만사니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LNG Tank Insulation Work)	원청:삼성ENG	620
금양산업 (하청)	만사니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원청:삼성ENG	256
나노플러스	EPS 순수장치 역삼투여과막 교체외	삼성전자 멕시코 법인	42
삼성ENG	인터젠 산 루이스 데파즈 발전 프로젝트	InterGen	152,500
웅남 (하청)	만사니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탱크기계공사)	원청:삼성ENG	879
태인이앤씨 (하청)	포스코 멕시코법인 CGL2기 건설공사(Civil works)	POSCO-MEXICO	18,430
포스코건설	포스코-멕시코 제 2연속 아연도금라인	POSCO-MEXICO	209,464
홍해기술 (하청)	만사니요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배관/기계/철골)	원청:삼성ENG	11,035
8개 업체	총 3건 공사(신규 3건)	3개 발주처	393,226

자료 : 해외건설협회

- ☐ 단, 멕시코 최대 발주처인 국영석유공사, 연방전력청 등이 국제입찰 참가를 FTA 체결국 업체에 제한하고 있어 FTA 체결 등 경제협력 강화가 필요함

2. 자동차산업

- ☐ 멕시코의 주요산업으로 자동차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총 생산량의 80% 이상이 수출되고 있어 우리 기업에게는 자동차 부품 수출의 기회임
- 2010년 자동차 생산량은 전년대비 50% 증가하였으며, 자동차산업은 GDP의 3%, 제조생산의 14%, 수출의 23%를 차지하고 있음
 - 폭스바겐, GM, 닛산, 도요타, 포드 등 세계적인 자동차업체의 생산공장이 집결되어 있으며 대미수출 전진기지화를 위한 이전 및 추가 공장을 설립 중임
 - 특히 엔고현상의 타결책으로 닛산, 마쓰다 등 일본계기업이 멕시코 현지공장을 늘리는 등 자동차 및 부품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2009-2010 멕시코 자동차 생산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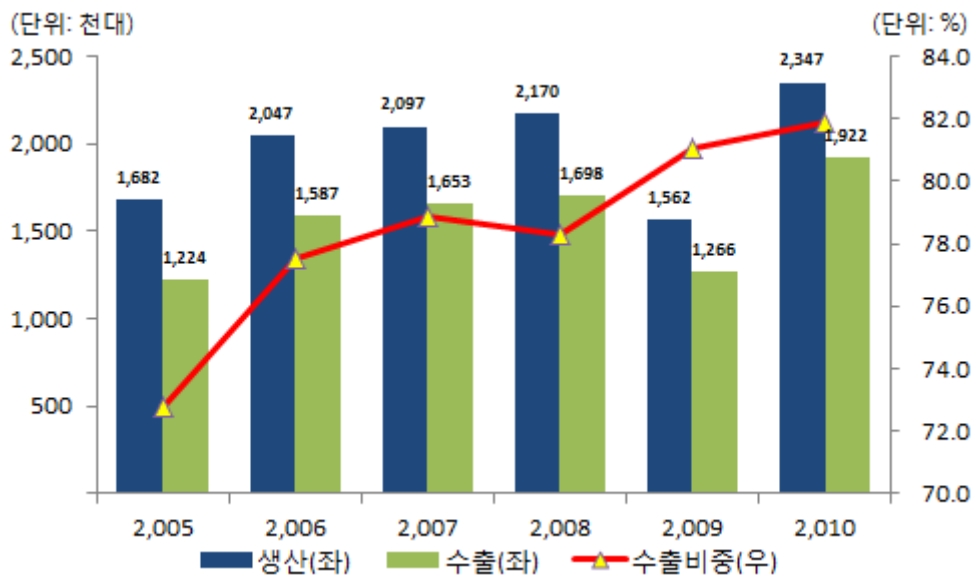
(단위 : 대, %)

제 조 업 체	2009	2010	증가율	시장점유율
제너럴 모터스	350,534	559,530	59.6	24.7
닛산	355,414	506,494	42.5	22.4
폭스바겐	319,743	434,685	35.9	19.2
포드	234,330	393,649	68.0	17.4
크라이슬러	157,082	257,319	63.8	11.4
혼다	47,728	55,001	15.2	2.4
토요타	42,696	54,278	27.1	2.4
합계	1,507,527	2,260,776	50.0	

자료 : 멕시코 자동차산업협회(AMIA), BMI

-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량 중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5년 73%에서 2010년 82%로 상승 추세에 있음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 및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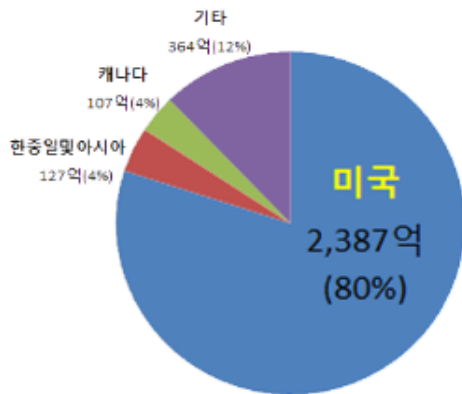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자동차공업협회(KAMA)

- 미국에 대한 멕시코의 수출액은 2,387억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80%를 차지하며, 대미 수출액의 50% 이상을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차지하고 있음

- 멕시코의 2010년 주요 대미 수출품목은 자동차(275억 달러), 자동차 부품(234억 달러), 영상음향기기(165억 달러), 통신기기(140억 달러)로 자동차, 전자 등 제조업 부문의 부품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멕시코의 수출대상국 비중과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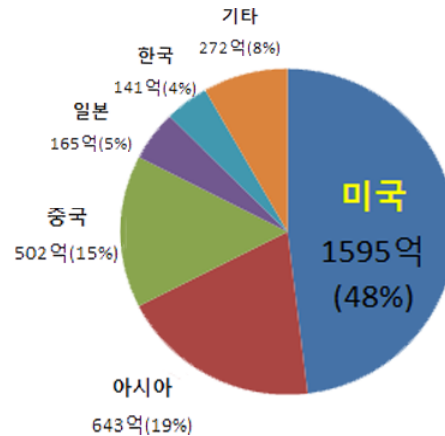
(단위 : 억 달러)



주 : 2010년 기준
자료 : kita.net

<멕시코의 수입대상국 비중과 금액>

(단위 : 억 달러)



주 : 2010년 기준
자료 : kita.net

<멕시코의 주요 대미수출품목과 수출액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09-2010 증가율
석유/가스	29.4	30.3	37.9	21.2	29.3	38%
자동차	23.2	23.1	22.0	18.4	27.5	49%
자동차부품	20.8	22.7	20.6	15.4	23.4	52%
영상음향기기	13.9	17.1	17.8	15.6	16.5	6%
통신기기	8.7	13.1	13.0	12.8	14.0	8%
기타	101.0	104.0	105.0	92.9	118.2	38%
총계	197.1	210.2	216.3	176.3	228.8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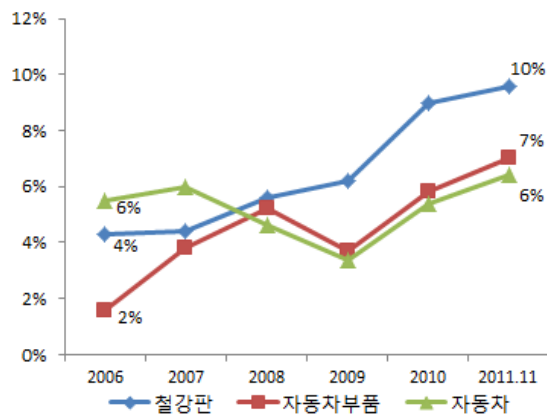
자료 : M. Angeles Villarreal,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2011)

-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판의 對멕시코 수출액이 對멕시코 연간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12%에서 2011년 23%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 멕시코 자동차산업의 성장에 따른 철강 수요 증가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철강관의 수출 증가율은 對멕시코 수출 증가율보다 항상 높았음
- 포스코는 타마울리파스주에 연간 50만톤 규모의 자동차용 강관생산 공장을 추가로 건설하여 생산량을 연간 40만톤에서 90만 톤으로 증가할 예정임(3억 달러 투자 예정)

<자동차 관련 수출 품목의 비중>

(단위 : %)



주 : MTI 3단위 기준, 對멕시코 수출액 대비
자료 : kita.net

<자동차 관련 품목의 수출 증가율>

(단위 : %)

연도	철강관	자동차 부품	자동차	전체
2006	69	72	174	66
2007	22	185	30	19
2008	54	65	-6	22
2009	-13	-44	-41	-22
2010	80	97	94	24
2011.11	21	40	32	12

주 : MTI 3단위 기준, 전년 대비 증감율
자료 : kita.net

□ 그러나 멕시코의 자동차 수입액 250억 달러 중 한국산은 9억 달러로 멕시코 수입차 시장에 대한 우리의 시장점유율은 4%에 불과함

- 현재 한국산 승용차에 대한 관세는 30%이며, 자동차 산업 투자유치 방안으로 현지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해외기업에게만 제한적으로 무관세 수입쿼터를 부여하고 있음
- 현지에 자동차생산 공장이 없는 우리 기업들은 제너럴 모터스, 크라이슬러 등 다국적 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무관세쿼터를 활용하여 OEM방식으로 수출하고 있음
- 현지생산을 위한 완성차 및 부품업체들의 동반 투자진출 또는 현지업체 및 외국업체와의 공동 진출 등을 통해 멕시코 자동차 및 부품시장에 진입할 수 있음

- 일례로 한국의 자동차부품업체 KDAC(한국델파이주식회사)는 멕시코에 제조 시설을 갖춘 자동차 배기가스 제품 공급업체 KATCON과 상업, 기술, 제조 및 조달 협력을 포함하는 전략적 사업 제휴 협정을 2010년에 체결함

【참고자료】

1. 멕시코 일반 개황 및 주요 경제지표

<멕시코 일반 개황>

◆ 면적 : 1,964,375 km ²	◆ GDP('11, 명목) : 11,415억 달러
◆ 수도 : 멕시코시티	◆ 1인당 GDP('11, 명목) : 9,944달러
◆ 인구('11) : 1억 1,479만명	◆ 통화단위 : 페소
◆ 종교 : 로마가톨릭(96%)	◆ 환율('11, US \$1당) : 12.35 Peso
◆ 정부형태 : 연방공화제	◆ 주요자원 : 석유, 천연가스, 은 등
◆ 국가주석 : 펠리페 칼데론 대통령	◆ 언어 : 스페인어

<멕시코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십억 달러, 1인당GDP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GDP	1,035.9	1,094.5	879.7	1,034.8	1,141.5
1인당 GDP	9,484.7	9,893.4	7,852.2	9,123.4	9,943.9
경제성장률	1.9	0.0	-7.3	4.1	2.7
산업생산증가율	2.0	-0.1	-7.6	6.0	5.5
소매판매증가율	2.4	2.7	1.2	-4.3	2.4
실업률	3.7	4.0	5.5	5.4	5.3
재정수지/GDP	0.1	0.0	-0.6	-2.8	-3.3
소비자물가상승률	3.6	4.0	5.1	5.3	4.2
환율(달러당, 연중)	10.90	10.93	11.13	13.51	12.64
경상수지	-4.5	-8.8	-16.2	-6.2	-5.6

자료 : Global Insight

2. 한-멕시코 주요품목 무역

<對멕시코 10대 품목별 수출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9		2010		2011(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7,133	-21.5	8,846	24	9,122	12.1
평판디스플레이	3,540	0.7	3,155	-10.9	2,361	-20.1
칼라TV	527	-60.1	954	80.9	953	8.2
선박	-	-	0	-	645	-
자동차부품	261	-44.4	514	96.9	643	39.5
승용차	211	-40.8	449	112.4	564	34.3
냉연강판	140	43.8	313	124.1	392	36.3
아연도강판	227	-26.1	331	45.6	326	7.4
합성수지	211	-15	257	21.9	307	28.2
무선전화기	182	-33.3	210	15	230	26.3
집적회로반도체	89	-30.6	154	73.8	137	-4.9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 : kita.net

<對멕시코 10대 품목별 수입 동향>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명	2009		2010		2011(1월~11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전체	972	-7.4	1,521	56.5	2,177	61.4
강반제품	16	-77.9	163	913.9	283	147.6
기타금속광물	31	2,855.30	87	182.1	276	226.4
아연광	53	1,388.10	180	242.2	227	52
동괴및스크랩	38	-76.2	33	-12.6	132	306.7
고철	30	-68.5	64	112.1	72	18.5
자동차부품	22	-19.2	49	127.3	67	53.8
동광	33	-31	57	74.7	67	16.8
연괴및스크랩	98	1,566.50	77	-20.9	60	-15.7
무선통신기기부품	96	87.2	97	1.1	58	-36
가축육류	16	-37.2	29	84.5	49	92.1

주 : MTI 4단위 기준
자료 : kita.net

<한국의 멕시코 시장점유율 상위 20개 품목>

(단위 : 백만 달러, %)

품목	한국의 對멕시코 수출	멕시코의 對세계 수입	한국의 멕시코 시장점유율
지와 판지	3	12	25.9%
광학 · 의료 · 측정 · 검사 · 정밀기기	2,533	10,203	24.8%
목재 · 목탄	2	8	22.6%
비금속제공구, 스푼 · 포크	43	260	16.6%
서적 · 신문인쇄물	1	9	15.8%
철강	840	7,264	11.6%
광물성연료 및 에너지	156	1517	10.3%
워딩 · 부직포	12	162	7.5%
인조필라멘트섬유	53	859	6.2%
각종화학공업생산품	22	526	4.2%
철강제품	254	6,623	3.8%
전기기기 · TV · VTR	2,680	70,870	3.8%
어패류	5	140	3.8%
자동차	877	24,712	3.6%
인조스테이플섬유	23	650	3.5%
편물	24	798	3.0%
침투 · 도포한직물	8	358	2.2%
플라스틱과 그 제품	343	17,405	2.0%
보일러 · 기계류	919	46,786	2.0%
도자제품	1	30	1.7%
전 품목	8,846	331,630	3%

주 : 2010년, HS 2단위 기준
자료 : UN Comtrade

3. 한-멕시코 투자

<한국의 對멕시코 투자 추이>

(단위 : 건, 백만달러, 비중 %)

연도	신고건수	비중(%)	신고금액	비중	투자금액	비중
2001	12	0.3%	7	0.1%	18	0.3%
2002	35	0.7%	72	1.1%	46	1.1%
2003	22	0.4%	28	0.4%	21	0.4%
2004	23	0.3%	37	0.4%	25	0.4%
2005	22	0.2%	81	0.8%	71	1.0%
2006	31	0.3%	111	0.6%	53	0.5%
2007	56	0.4%	228	0.8%	120	0.5%
2008	55	0.5%	288	0.8%	305	1.3%
2009	46	0.5%	140	0.5%	55	0.3%
2010	56	0.6%	227	0.7%	64	0.3%
2011	55	0.8%	241	0.7%	143	0.8%
누적액	566	0.5%	1,782	0.6%	1,139	0.6%

주 : 비중은 각 항목별 한국의 대세계 투자에서 멕시코가 차지하는 비중
 자료 : 수출입은행

<對멕시코 직접투자 주요 국가별 현황>

(단위 : 백만 달러, %)

순위	2008			2009		
	국가	금액	비중	국가	금액	비중
1	미국	11,039	41.6%	미국	7,178	45.3%
2	스페인	4,882	18.4%	스페인	2,678	16.9%
3	캐나다	3,055	11.5%	네덜란드	2,068	13.1%
4	네덜란드	1,823	6.9%	캐나다	1,609	10.2%
5	버진아일랜드	1,456	5.5%	영국	346	2.2%
6	영국	1,288	4.9%	벨기에	337	2.1%
7	독일	609	2.3%	프랑스	240	1.5%
8	대한민국	371	1.4%	일본	221	1.4%
9	룩셈부르크	349	1.3%	싱가포르	196	1.2%
10	스위스	224	0.8%	룩셈부르크	188	1.2%
11	프랑스	197	0.7%	브라질	127	0.8%
12	일본	142	0.5%	아일랜드	113	0.7%
13	파나마	138	0.5%	스위스	82	0.5%
14	싱가포르	109	0.4%	대한민국	76	0.5%
전체		26,565	100.0%	전체	15,829	100.0%

자료 : 멕시코 경제부(SE)

<한국의 對멕시코 업종별 투자 현황>

(단위 : 천 달러, %)

산 업	2009			2010		
	신규 법인	투자 금액	비중	신규 법인	투자 금액	비중
제조업	6	50,297	91.3%	10	56,311	88.1%
광업	0	3,547	6.4%	13	6,360	9.9%
금융 및 보험업	-	-	-	1	2	0.0%
도매 및 소매업	1	561	1.0%	2	766	1.2%
건설업	-	-	-	1	67	0.1%
운수업	-	-	-	1	255	0.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	162	0.3%	0	120	0.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	-	1	53	0.1%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	528	1.0%	-	-	-
전 체	8	55,094	100%	16	63,934	100%

자료 : 수출입은행

한-멕시코 수교 50주년 :
멕시코 시장의 중요성과 유망 진출분야
Trade Focus Vol.11 No.8

발행인| 사공 일
편집인| 이경태
발행처|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발행일| 2012년 1월 26일
인쇄처| (주)보성인쇄기획

등록일자| 1960년 5월 26일
등록번호| 2-97호